

서양인들의 동해 탐방과 『수로지』 속의 독도

保坂祐二* · 金秀炫** · 金奎植***
(e-mail : hosaka@sejong.ac.kr)

目 次

서론

제1장 일본 외무성 사이트와 서양인들에 의한 울릉도 발견

1. 일본 외무성 사이트의 기술
2. 서양인들의 동해탐방

제2장 시볼트의 ‘일본과 그 주변지도’와 서양인들의 독도발견

1. 시볼트의 지도
2. 시볼트 지도의 동해에 나타난 두 섬
3. 시볼트 지도와 울릉도·독도
4. 서양인에 의한 독도발견
5. 서영지도의 섬의 명칭 혼란이 일본에 준 영향

제3장 독도의 일본명이 ‘리안코르토 암’이 된다

1. 군함 아마기의 울릉도 측량과 두 섬의 명칭 정착
2. 수로부의 각종 『수로지』에 나타난 독도

결론

서 론

일본정부의 외무성 사이트 내에 작성된 ‘다케시마 문제’라는 페이지는 서양인들의 동해탐방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외무성 사이트의 ‘다케시마 문제’ 페이지는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왜 그리 관계가 깊지 않아 보이는 서양인의 동해탐방 이야기를 첫 번째 내용으로 게재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

* 세종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대원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4반, ***경기고등학교 1학년 14반.

을 주면서 일본정부의 숨은 의도를 밝히고 그 서양인들의 동해 탐방으로 인해 일어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혼란 사태가 일본정부에 의해 이용되어 독도의 일본명칭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주지 선점논리에 이용되는 과정을 밝히는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고를 쓰는데 있어 필자의 새로운 분석이나 새로 밝힌 부분에는 기존의 연구나 언급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하나하나 명기하기로 한다.

서양인들의 동해탐방에 대한 선행논문으로는 가와카미 켄조(川上健三)의 『테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연구(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1966)와 이진명의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2005)이 있다. 그리고 『수로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선행논문으로는 박병섭 기타의 『독도=다케시마 논쟁』(2007)이 있다¹⁾.

제1장 일본 외무성 사이트와 서양인들에 의한 울릉도 발견

1. 일본 외무성 사이트의 기술

조선조는 15세기 초 태종조 때에 울릉도에 사람을 거주시키지 않고 섬을 비어놓는 정책을 실시했다²⁾. 이후 약 480년간에 걸쳐 조선조는 울릉도 공도정책을 지켰으나 1881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고종임금 때 조선은 울릉도 공도정책을 이주정책으로 바꾸었다³⁾. 다수의 일본인들이 몰래 울릉도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100년 이상 전부터 동해에는 서양선박들이 출몰하고 있었다.

서양인들이 동해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후반부터였다. 특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세 나라 선박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발견하여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18세기말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선박들이 울릉도를 발견했고 19세기 중반에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의 선박들이 잇따라 독도를 발견하여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다.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 ‘다케시마 문제’ 페이지 속에서 서양인들의 동해 탐방이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묘

1) 기타, 최석우, 김호동, 김영수 등에 의한 선행논문이 있다. 『수로지』에 대한 선행논문들은 주로 수로지를 통해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본고는, 일본학자들이 같은 『수로지』 속에서 독도의 경위도가 한국영토 외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비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태종실록』, 1403. 8.

3) 『고종실록』, 1881. 5. 22.

사되었다.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즐레(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켈넛도 울릉도를 발견하였으며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페루즈와 켈넛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마치 2개의 다른 섬이 울릉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1840년 나가사키 출신의 의사 시볼트가 '일본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볼트는 일본의 여러 문헌과 지도를 통해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다케시마'(현재의 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다케시마가 마쓰시마보다 서쪽에 위치).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즐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다케시마를 잘못 표기)'로, '다즐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 또는 '이소다케시마'로 계속 불리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⁴⁾

일본 외무성은, 서양인들의 측량실수로 서양지도에 두 개의 울릉도가 나타났고 그것을 일본에 머물렀던 시볼트가 'Takashima(다카시마=다케시마)⁵⁾와 'Matsushima(마쓰시마)'로 그의 지도에 표시해 후에 다카시마로 표기된 아르고노트 섬이 지도에서 사라짐으로써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이런 주장은 결국 19세기 중반쯤에는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불렀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로 주장하지만 19세기에는 섬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은 허위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자백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는 현재까지 흔히 주장되어 온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정부는 두 섬의 명칭혼란 사실을 외무성 사이트에 게재해 강조하는 것일까?

일본의 의도는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불린 섬은 독도가

4)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osition1-k.html>, (2010. 5.20. 검색) 외무성 <다케시마문제>

5) 시볼트는 그가 그린 지도(1840)에 다케시마(Takeshima)를 'Takashima'로 잘못표기 했다.

아니라 울릉도임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 당시 일본인들이 작성한 조선지도에 조선령으로 그려진 ‘다케시마’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고 ‘마쓰시마’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이므로 일본인이 제작한 조선지도에 독도가 그려진 적이 없다고 강변하기 위해서이다.⁶⁾

두 번째 목적은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에 1870년에는 ‘조선의 부속’, 1877년에는 ‘일본영토 외’로 기재된 ‘마쓰시마’⁷⁾라는 섬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고 억지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가와카미 켄조(川上健三) 등 일본의 독도연구자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섬의 명칭혼란 사실이 당시 일본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으로 사실을 확대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메이지정부가 조선의 부속, 혹은 일본영토 외로 선언한 ‘마쓰시마’가 결코 독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일본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환언하면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1877년의 ‘태정관 지령문’ 등이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일본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공문서이므로 일본정부는 일본에 불리한 두 문서를 숨기고 왜곡해야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그 정도로 이 두 문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문서로 봐야 한다.

2. 서양인들의 동해탐방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 사이트에 실린 두 섬의 명칭혼란 사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에도시대(1603-1867)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그런데 18세기말쯤부터 유럽인들이 동해를 탐방하면서 두 섬을 나름대로 발견해 이름을 붙이고 서양지도에 그리기 시작했다.

먼저 1787년에 프랑스인 탐험가 라페루즈에 의해 울릉도가 발견되었다. 라페루즈는 그때 울릉도를 처음으로 본 탐험자 다즐레 영국육군사관학교 교수의 이름을 따서 울릉도를 ‘다즐레 섬’으로 명명했다. 이렇게 하여 서양에서 울릉도는 ‘다즐레 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2년 후인 1789년에 영국의 제임스 쿨넷이 이끈 아르고노트호가 영국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울릉도를 발견하여 섬을 측량했다. 그러나 아르고노트호는 나침반에 문제가 생겼는지 울릉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위도를 실제 경위

6) 가와카미 켄조는 19세기에 일본에서 그려진 일본전도나 조선전도 중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지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1966, pp.29-31)

7) 1870년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일본정부 중앙(태정관)에 제출했다(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자료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일본의 최고권력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 외로 한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했다(일본 국립공무서관 소장자료 『공문록』)

도보다 북서쪽으로 잘못 측량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유럽인이 작성한 ‘조선과 일본의 지도’에는 동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르고노트 섬과 울릉도인 다즐레 섬, 두 섬이 그려진 지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811년에 간행된 영국의 애로-스미스(Arrow Smith)의 ‘조선과 일본도’는 두 개의 울릉도를 각각 아르고노트 섬, 다즐레 섬으로 그린 대표적인 지도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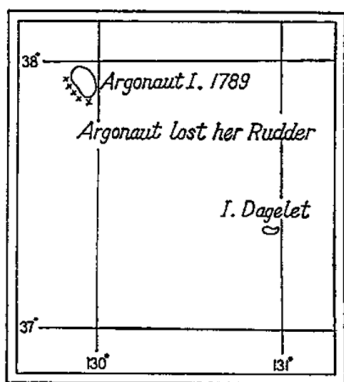
애로-스미스의 지도를 보면 아르고노트 섬 바로 아래에 ‘아르고노트는 키를 잃었다(Argonaut lost her Rudder)’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측량을 잘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글인 것이다⁹⁾. 여기까지는 가와카미 켄조의 저서(1966)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필자가 볼 때는 애로-스미스의 지도는 다즐레 섬을 아르고노트 섬보다 훨씬 작게 그렸다. 당시 아직 지도에 정확한 경위도선을 그리지 못했던 일본인이 볼 때 두 섬의 위치와 크기로 아르고노트 섬은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이고 다즐레 섬은 다케시마(울릉도)보다 동남쪽에 위치하고 다케시마보다 작은 마쓰시마(=독도)를 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지도가 일본으로 유입되었을 때 일본인들은 서양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서양식 이름으로 그렸다고밖에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와 영국의 선박들이 울릉도를 측량하기 10년쯤 전인 1779년에 일본에서 제작되어 비교적 널리 보급된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와 애로-스미스의 지도를 대조해 보면, 나가쿠보의 지도에 그려진 다케시마(=울릉도)·마쓰시마(=독도)가 바로 스미스의 지도에 그려진 아르고노트 섬·다즐레 섬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환언하면 서양인이 볼 때 아르고노트 섬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섬이고 다즐레 섬이 바로 울릉도이지만, 일본인이 볼 때에는 서양지도의 아르고노트 섬은 다케시마(=울릉도)이고 다즐레 섬이 마쓰시마(=독도)로 인식되었다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애로-스미스의 지도와 나가쿠보의 지도를 대조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은 필자가 처음임).

그렇다면 당시 조선조에서는 서양선박들이 울릉도를 측량하고 간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조선조는 17세기말에 일어난 조일간의 울릉도 분쟁 이후 100년 정도는 3년에 한 번씩 울릉도 등지에 관리



Arrow Smith 의 圖

8) 게재한 애로-스미스의 지도는 가와카미켄조의 저서(1966) p.18 부터의 인용임.

9)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1966, p.11.

를 파견했다¹⁰). 그러므로 시기가 맞으면 울릉도로 파견된 조선관리들이 서양 선박을 울릉도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서양선박이 울릉도를 발견한 1787년과 1789년은 조선에서는 정조(正祖)시대였다. 그런데 『정조실록』을 봐도 서양선박들이 울릉도를 측량한 시기가 포함되는 1785년(정조 9년) 4월6일의 기록으로부터 1791년(정조15년) 10월20일의 기록까지 무려 7년 반 동안 서양인에 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¹¹).

한편 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1787년에 세 가지 남아 있다¹²). 그러나 그 기록들은, 울릉도에서 군기(軍器)를 만들게 했다는 기록(1787년 음6월),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어복(魚鰯)·향죽(香竹)을 채취한 삼척 사람들 14명이 삼척 포구에서 잡혔다는 기록(음7월), 울릉도의 인삼이 불법 거래되어 있다는 기록(음9월) 등이고 서양선박에 관한 기록은 없다.

프랑스의 라페루즈가 선박을 이끌고 울릉도를 측량하여 다즐레 섬으로 명명했을 때가 1787년 5월 28일(양력)이다¹³). 서양의 기록은 양력, 조선의 기록은 음력으로 되어 있으므로 라페루즈가 울릉도를 측량한 날짜는 음력으로는 4월 경이 된다. 결국 조선조는 1787년과 1789년에 서양선박들이 울릉도를 측량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내용이다.

제2장 시볼트의 ‘일본과 그 주변지도’와 서양인들의 독도발견

1. 시볼트의 지도

서양선박들이 울릉도를 발견한 후 그들이 독도를 발견하기까지는 약 60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한 독일인이 당시 일본과 교역관계가 있던 네덜란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귀국해 ‘일본과 그 주변지도’를 작성했다. 그가 바로 유럽 일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볼트다¹⁴).

독일인 시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1796-1866)는 1820년부터 1829년까지 일본 나가사키(長崎)의 네덜란드 상관(商館) 전임 의사로 근무하면서 일본의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가 1826년에 네덜란드로 일시 귀국하려고 했을 때 에도막부의 기밀로 되어 있던 일본전도인 이노도(伊能図, 1821년 완성)¹⁵)를 비롯해 몇 점의 일본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려고 했다.

10) 호사카유지, 『우리역사 독도』, 책문, 2009, p.264.

11) 『정조실록』, 1785년(정조 9년) 4월6일~1791년(정조15년) 10월20일.

12) 『정조실록』, 1787. 음6월, 음7월, 음9월 기사.

13) 川上健三, 전게서, p.10.

14) 시볼트 기념관 저, 『シーボルトのみたニッポン』, 2005, p.41.

15) 호사카유지, 전게서, p.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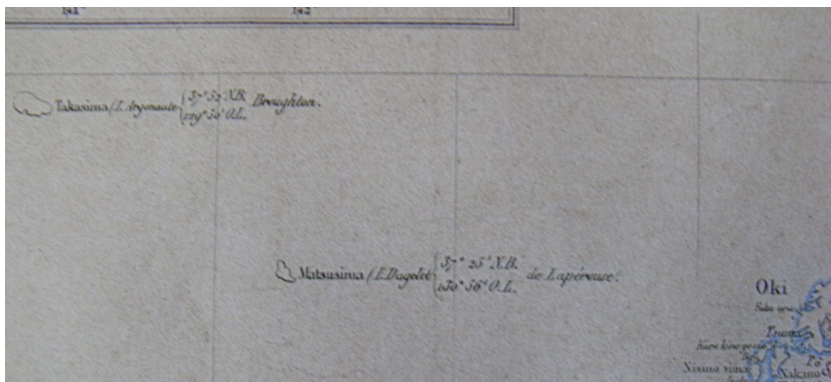
그것이 발각되어 그는 3년간 나가사키의 외국인 거주지 테지마(出島)에서 머물러야 했다¹⁶⁾.

그러나 그는 이노도를 비롯해 나가쿠보 세키수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1779)와 막부관리 다카하시 가케야스(高橋景保)가 작성한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1809) 등 3점을 유럽으로 반출하는데 성공하여 그 지도들을 토대로 그는 ‘일본과 그 주변지도’(1840)를 작성했다.¹⁷⁾ 일본정부는 이렇게 작성된 시볼트의 지도가 일본에 유입되어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이 혼란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시볼트의 ‘일본과 그 주변지도(이하, 일본도)’가 일본에 유입된 것은 사실이다. 현재 시볼트의 ‘일본도’는 일본 치바현에 위치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 한 점 남아 있다¹⁸⁾. 그러나 그것이 일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필자의 지적임). 그런데 왜 일본정부나 일본학자들은 시볼트 지도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애써 강조하는 것일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독도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양지도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혼란이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당시 일본의 공문서에 나타난 조선영토 ‘마쓰시마’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고 강변하기 위해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2. 시볼트 지도의 동해에 나타난 두 섬

시볼트가 작성한 ‘일본과 그 주변지도’를 보면 동해에 Takashima(다카시마 : 다케시마를 잘못 표기), Matsushima(마쓰시마)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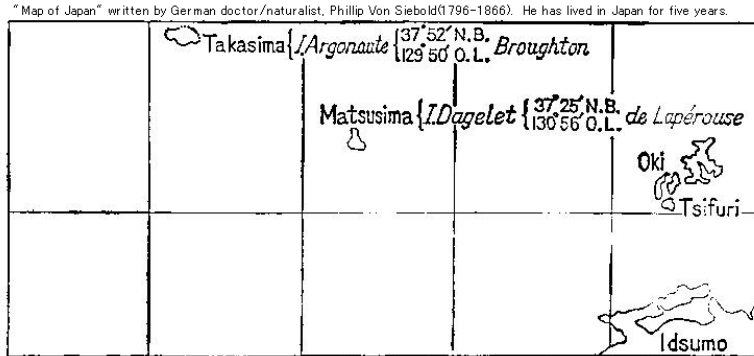


<그림-1> 시볼트 ‘일본도’의 울릉도, 독도, 오키 섬 부분¹⁹⁾.

16) 시볼트 기년관, 전계서, pp.29-39.

17) 川上健三, 전계서, p.11.

18) 武楊堂, 『伊能図』(2002), p.238.



<그림-2> 시볼트 ‘일본도’의 울릉도, 독도, 오키 섬 부분을 손으로 복사한 그림²⁰⁾.

그리고 Takashima(다카시마)에 이어서 지도상에는 ‘I. Argonaut, 북위 37도 52분, 동경 129도 50분, Broughto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I. Argonaut’란 ‘아르고노트 섬’을 뜻하고 그 다음에 기재된 경위도는 1789년에 영국의 아르고노트호가 울릉도의 경위도를 잘못 측량한 값이다. 경위도 옆에 쓰인 인명 ‘Broughton’은 영국해군 중위 ‘윌리엄 로버트 브루튼(William Robert Broughton)’이고 그는 1797년에 조선연해를 탐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울릉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볼트가 울릉도 발견자로서 그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²¹⁾.

그리고 Matsushima(마쓰시마)에 이어서 ‘I. Dagelet, 북위 37도 25분, 동경 130도 56분, De Laperouse’라고 표시되어 있다. ‘I. Dagelet’이란 Matsushima(마쓰시마)의 서양이름으로 ‘다즐레 섬’을 뜻한다. 그 다음에 표시된 경위도는 울릉도의 실제 경위도와 일치한다. 그리고 ‘De Laperouse’란 울릉도를 발견하여 정확히 측량한 프랑스 선박 ‘가로·데·라페루즈(Galaup de Laperouse)’를 뜻한다.

그러면 시볼트의 지도에 나타난 일본명 Takashima(다케시마)와 Matsushima(마쓰시마)의 출처는 무슨 문서일까? 그것이 바로 나가쿠보 세키수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시볼트가 해외로 반출한 지도 3점 중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지도는 나가쿠보의 지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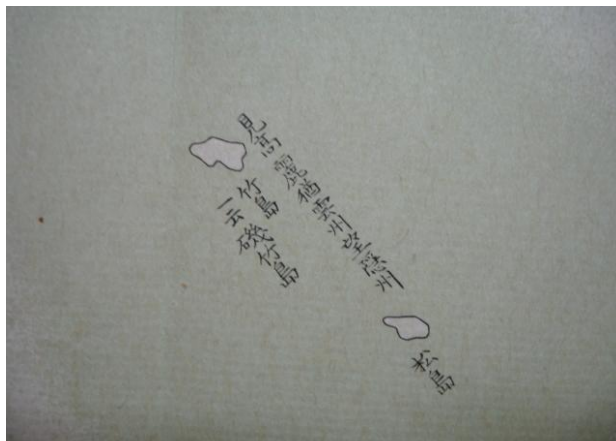
19) 상계서, p.238.

20) 川上健三, 전계서, p.12.

21) 상계서, p.17.

그런데 나가쿠보의 지도의 울릉도·독도 부분을 보면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이소타케시마(磯竹島)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고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적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술한 애로-스미스의 지도처럼 나가쿠보 지도의 마쓰시마는 다케시마보다 작게 그려져 있다. 마쓰시마(독도)는 실제로 두 개의 섬, 즉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가쿠보의 지도에서는 하나의 섬만으로 그려져 있다(필자가 처음으로 지적하는 내용임).

그러므로 애로-스미스의 지도와 나가쿠보의 지도를 대조시키면 다케시마는 아르고노트 섬과 일치하고 마쓰시마는 다줄레 섬과 일치한다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그림-3> 나가쿠보 세키스이 작성의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속에 그려진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²²⁾.

전술한 바와 같이 서양의 동해탐험가들이 시볼트가 일본도를 작성한 1840년에는 서양인들이 아직 독도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볼트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각각 아르고노트 섬과 다줄레 섬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필자가 처음으로 내놓은 분석임).

3. 시볼트 지도와 울릉도·독도

그러면 일본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시볼트의 ‘일본도’가 일본으로 유입되어 일본에서 두 섬의 명칭이 혼란되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볼트의 ‘일본도’가 작성된 1840년 시점은 아직 서양인들이 독도를 발견하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시볼트가 동해에 그린 두 섬은 시볼트 자신도 의심없이 울릉도와 독도로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 1779, 개인소장.

그러므로 당시 시볼트의 지도를 일본인이 봤다고 해도 시볼트가 그린 Takashima(다케시마)와 Matsushima(마쓰시마)를 각각 울릉도와 독도로 판단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볼트의 일본도를 봐도 일본인들이 예전과 다른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필자의 분석임).

1876년에 민간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가 울릉도를 보고 시볼트의 일본도의 경위도상 그 섬을 마쓰시마라고 생각해 ‘마쓰시마 개척 건’을 외무성에 올렸으나²³⁾ 그것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그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시볼트의 지도는 일본보다 서양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지도로 인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는 섬의 이름이 오히려 서양인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볼트의 일본도가 1840년에 작성된 다음에 다른 서양 지도에 ‘마쓰시마’라는 섬의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1856년이다. 미국의 페리제독이 1856년에 펴낸 『일본원정기』 제1권에 삽입된 ‘일본근역도’에는 동해에 아르고노트 섬, 다줄레 섬, 호넷락스 등 3개 섬이 그려져 있다. 아르고노트 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고 다줄레 섬에는 섬 아래 ‘Matushima(마쓰시마)’라는 일본명이 적혀 있다. 이런 분석은 가와카미 켄조가 그의 저서(1966) 속에 게재한 페리의 ‘일본근역도’를 분석한 내용이다. 호넷락스란 영국이 1855년에 독도를 발견하면서 붙인 독도의 영국식 명칭이다.²⁴⁾

그러므로 다줄레 섬이나 마쓰시마라는 섬이 울릉도를 뜻한다고 분명히 보여준 첫 번째 지도는 1856년에 미국에서 페리제독이 쓴 서적의 부도로 시볼트의 일본도의 영향을 받아 처음으로 작성된 지도인 것이다(이 지적은 필자의 분석임).

한편 일본인이 제작한 지도로서 마쓰시마가 울릉도를 뜻하는 지도는 1867년, 바로 에도시대 말년에 등장한다. 그 지도는 에도막부의 중진 가쓰 가이슈(勝海舟)가 영국해군이 작성한 지도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대일본연해약도’²⁵⁾이다. 이 지도에는 다케시마(아르고노트 섬), 마쓰시마(다줄레 섬), 호넷락스(독도) 등 3섬이 동해에 그려져 있다.

그런데 원래 이 지도는 1861년에 영국군함이 일본연해를 몇대로 측량하려고 했었을 때 가쓰 가이슈가 영국군함으로 하여금 측량을 포기하게 하도록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실측 일본전도’를 건네줘서 작성된 서양지도이다²⁶⁾. 이노의 일본전도가 매우 정확했으므로 영국해군이 이노의 일본전도를 토대로 그들의 일본지도를 작성했다. 그렇게 작성된 영국지도를 토대로 가쓰 가이슈가 1867년에 일본지도로 작성한 게 ‘대일본연해약도’인 것이다²⁷⁾. 영국해군이 작성

23) 川上健三, 전계서, pp.31-41.

24) 상계서, p.13.

25) 개인소장.

26) 『伊能図』 상계서, p. 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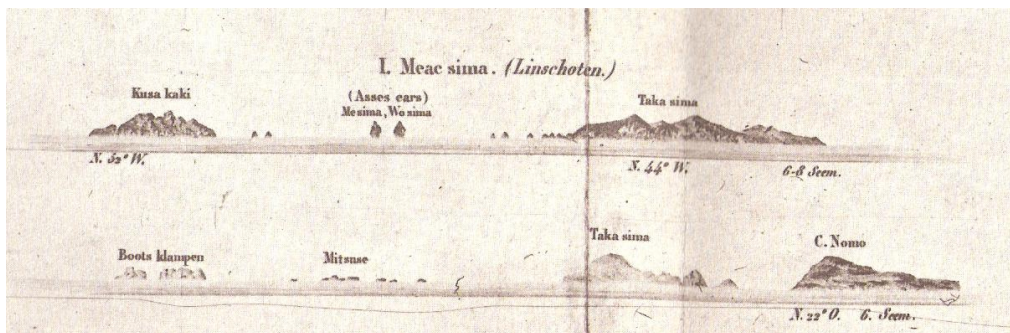
한 일본지도에는 동해에 다케시마, 마쓰시마, 호넷락스(독도)가 그려져 있었으므로 가쓰 가이슈의 일본지도 ‘대일본연해약도’에도 3섬이 그려지게 되었다.

그런 복잡한 경위로 시볼트의 일본도가 다케시마(울릉도)를 아르고노트 섬, 마쓰시마(독도)를 다줄레 섬으로 기재한데 대한 영향이 일본에서 지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867년이였다(필자의 분석임).

그런데 시볼트의 지도를 더 주의 깊게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그림-4>에 대한 언급은 필자의 분석에 의함). 시볼트의 일본도 하단 중간부분에는 어느 섬들의 약도가 별도로 그려져 있다. 그것을 잘 보면 울릉도와 독도를 그린 약도임을 알 수 있다. 그 약도는 두 가지 그려져 있는데 그들 중 위쪽에 그려진 섬들을 보면 가장 오른 쪽 섬에 Takasima(다카시마=다케시마)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시볼트가 동해에 그린 Takasima, 즉 그가 생각한 울릉도이다.

그리고 Takasima 동쪽에 I. Meae sima라는 명칭 아래 두 개의 섬들이 그려져 있다. 이 섬들은 마쓰시마(=독도)의 두 개 섬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볼트가 Matsusima를 같은 지도 속에서 I. Meae sima로 다른 명칭을 쓰면서 그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명칭 아래 그려진 두 개의 작은 섬들의 명칭은 틀림없이 독도의 일본명인 것이다. Takasima(울릉도)에 가까운 독도의 서쪽 섬에 Wosima, 동쪽 섬에 Mesima라고 적혀 있다.

일본에서는 독도의 서도를 오시마(男島<남도>), 동도를 메시마(女島<여도>)라고 불렀는데²⁷⁾ 시볼트는 독도의 서도와 동도를 일본명으로 그의 일본도 중앙 하단부분에 그려 놓았다.



<그림-4> 시볼트 ‘일본도’ 중앙 하단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지도

이런 식으로 시볼트는 그가 동해에 그린 Takasima와 Matsusima가 울릉도

27) 古地図の世界, <http://www.library.pref.gifu.jp/map/kochizu/data/07.html>. (검색: 2010. 5.20)

28) 川上健三, 전계서, p.5.

와 독도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지도 하단부분에 그 사실을 그려놓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⁹⁾

1847년에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독도의 경위도를 정확히 측량하기 전에 시볼트는 일본에서 얻은 지식과 지도 등을 토대로 그가 그린 일본도 상에서의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울릉도와 독도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도 중앙 하단에 그려진 울릉도, 독도에 대한 별도의 약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일본에서의 두 섬의 명칭 혼란사태는 시볼트의 일본도를 정확히 읽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이 지적은 필자의 분석에 의함).

4. 서양인에 의한 독도발견

서양인에 의한 독도의 발견은 가와카미 켄조의 의하면 다음과 같았다.

시볼트의 일본도가 작성된 지 7년이 지난 시점, 바로 1847년에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Liancourt)가 서양선박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여 리앙쿠르 락스(Liancourt Rocks)로 명명했다.

이어서 1854년에는 러시아 군함 팔라다호(Pallada)가 독도를 측량하여 서도를 올리부좌(Olivutsa), 동도를 매넬레이(Manalai)로 명명했다.

그 다음해인 1855년에는 영국의 군함 호넷호(Hornet)도 독도를 발견·측량하여 호넷 락스(Hornet Rocks)로 명명했다³⁰⁾.

서양인들이 동해로 진출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18세기말쯤에는 울릉도를 발견했고 그 50~60년 후인 19세기 중반쯤에는 독도를 발견해 각각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측량한 독도가 서양지도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전술한 페리제독의 저서에 삽입된 부도가 나온 1856년 이후가 된다(이 지적은 필자의 분석에 의함).

1856년 이후 서양에서 아르고노트 섬, 다줄레 섬, 리앙쿠르 락스(=호넷락스) 등 3섬이 그려진 지도가 등장했고 그 경향은 서양에서 1894년 정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동해에 섬이 셋이 그려진 서양지도는 1856년부터 1894년까지 5점정도 존재한다.³¹⁾

한편 1872년부터는 아르고노트 섬을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판단하여 지도에서 삭제시킨 지도가 서양에서 작성되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런 지도들은 동해에 2개 섬만 그렸지만 울릉도를 마쓰시마(다줄레 섬), 독도를 리앙쿠르 락스, 혹은 호넷락스로 표시했다³²⁾.

29) 지도 중앙하단에 있는 Takashima의 위도가 북위 44도(정확히는 북위 37도25분)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30) 川上健三, 전계서, p.11.

31) 상계서, pp.16-17.

결국 동해의 두 섬의 명칭과 실제로 섬이 몇 개 있는 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은 주로 서양인들이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에도막부나 돗토리번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에 대한 기록을 다수 남겼기 때문에 서양의 지도 유입으로 두 섬의 명칭이 혼란스러워졌다고 해도 그 영향은 미미했으며 현재의 일본정부가 주장할 정도로 크지 않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의 서양지도의 영향을 강조하는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문제’ 페이지는 어떤 의도,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마쓰시마’로 표시된 섬들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5. 서양지도의 섬의 명칭 혼란이 일본에 준 영향

그러면 서양지도가 울릉도, 독도의 명칭 혼란을 겪고 있었던 기간 그 서양지도는 실제로는 얼마나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까?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정부나 학자들이 서양지도의 영향을 확대 선전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에서의 섬들의 명칭혼란의 영향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1876년에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라는 민간인이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부르면서 ‘마쓰시마 개척 건’이라는 건의서를 외무성에 제출했을 때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사태가 수습된 것은 1880년이었기 때문에 섬들의 명칭혼란의 영향이란 4년간에 불과했다(이런 지적은 필자가 처음임). 그 기간 중 1877년에는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 태정관이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전통적인 섬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³²⁾.

즉 일본에 있어 서양인들이 겪은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혼란 사태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문제는 1880년 이후, 일본정부가 울릉도를 ‘마쓰시마’라는 명칭으로 고정시키고 독도의 이름을 서양이름인 ‘리앙쿠르 락스’를 변형시킨 ‘리앙코르토 열암’ 등으로 바꿔버리면서 본격화되었다(필자의 주장임). 결국 일본정부가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던 역사를 삭제하면서 독도 강제 편입에의 길이 시작되었다(필자의 주장임). 일본이 서양인들이 겪은 두 섬의 명칭혼란 사태를 이용하면서 1880년에 독도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부터 단절시켰고 독도는 1847년에 프랑스선박 ‘리앙쿠르 호’에 의해 발견된 섬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서에 명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공문서는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1883년 이후 발행하기 시작한 각종 『수로지』이다(필자의 분석임). 일본 정부는 독도가 ‘마쓰시마’이고 ‘마쓰시마’는 조선의 부속이니 일본과 관계가 없

32) 상계서, pp.16-17.

33) 「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 『太政類典』(1887, 3. 29).

다고 한 태정관 지령문 같은 공문서와 ‘리안코르토 열암’이 된 독도의 역사를 끊어버려 일본이름이 없는 무명이자 주인이 없는 섬으로 시마네현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다(필자의 분석임).

제3장 독도의 일본명이 ‘리안코르토 암’이 된다

1. 군함 아마기의 울릉도 측량과 두 섬의 명칭 정착

일본정부는 민간에서 말하는 ‘마쓰시마’라는 섬이 어떤 섬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 1880년에 군함 아마기(天城)를 울릉도로 파견했다. 군함 아마기의 울릉도 측량 후 일본 정부 내에서는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이 공식지도나 공문에서는 ‘마쓰시마’로 정착되었다. 그러므로 원래 ‘마쓰시마’였던 독도의 일본명이 없어지게 생겼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프랑스명인 ‘리앙쿠르 락스’에서 파생된 말 ‘리안코르토 암’이나 줄인 말 ‘랴코도’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 동쪽 2km에 있는 죽도라는 보고에 의해 울릉도 북서쪽에 존재한다고 여겨진 다케시마(아르고노트 섬)는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유럽과는 달리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섬의 명칭 혼란이 1880년에 ‘일단락’ 되었다³⁴⁾.

그러나 일본의 민간에서는 아직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로 불렀던 전통적인 명칭 사용을 그대로 사용해 지도 등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³⁵⁾. 그러므로 1880년 이후, 일본정부가 작성한 지도나 문서 등에는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안코르토 암(=리앙쿠르 락스)으로 기재한 것들이 많아졌고 민간 작성 지도나 문서 등에서는 옛날 그대로의 표기, 즉 울릉도를 다케시마, 독도를 마쓰시마로 기록한 것들이 아직 상당수 남아 있었다.

가와카미 켄조가 정리한 그 시기의 지도, 문서 분류를 분석하면 19세기에 제작된 일본지도들에는 주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전통적인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지도나 문서. 둘째는 다케시마, 마쓰시마, 리앙쿠르 락스(독도) 등 3섬이 그려진 지도, 셋째는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앙쿠르 락스(독도) 등 두 섬이 그려진 지도나 문서, 넷째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동해에 그려졌으나 다케시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아르고노트 섬이고 마쓰시마는 울릉도를 그린 지도, 다섯 번째는 마쓰시마(울릉도)만 그려진 지도 등이다. 가와카미 켄조가 언급한 지도나 문서들에 필자가 추가한 지도, 문서들을 포함시켜 표로 분류하여 통계를 내면 다음과 같다.

34) 川上健三, 전계서, p.40.

35) 상계서, pp.19-20.

울릉도 등이 기재된 일본제작 지도, 문서 분류	지도 및 문서 수 (괄호내: 공식지도 및 문서수)
전통적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 2점 기재	14(2)
다케시마, 마쓰시마, 리앙쿠르락스(독도) 3점 기재	2(1)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앙쿠르락스(독도) 2점 기재	9(5)
다케시마(아르고노트섬), 마쓰시마(다즐레섬) 2점 기재	4(2)
마쓰시마(울릉도)만 기재	4(2)

<표-1> 가와카미 켄조의 저서(1966)를 토대로 하여 거기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태정관 지령문’, 그리고 본인이 찾아낸 지도들을 추가한 분류.

<표-1>을 보고 알 수 있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를 기재한 지도와 문서가 가장 많고 14점이 있다. 지도는 12점, 문서는 2점이다. 그들 중 지도 12점은 모두 민간지도이다. 나머지 문서 2점은 ‘조선국 교제시말내탐서(1870)’와 ‘태정관 지령문(1877)’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앙쿠르 락스(독도) 2점을 동해에 기재한 지도와 문서들인데 모두 9점이다. 그 중 공식문서가 3점, 공식지도가 2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4점은 민간제작 지도다.

여기서 공식 문서란 1883년부터 해군성 수로부가 작성하기 시작한 각종 『수로지』다. 그러므로 당시 일본의 공식 문서 『수로지』에는 1883년부터 1905년 이전까지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앙코르토 열암’으로 기재했다. 이런 공식 지도나 공식 문서는 모두 1880년의 군함 아마기의 울릉도 파견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다(<표-1>에 대한 분석은 필자에 의한 것임).

이런 결과를 볼 때 혼란을 겪은 것은 주로 일본정부였고 민간인들은 전통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옛날그대로였다고 할 수 있다.

2. 수로부의 각종 『수로지』에 나타난 독도

그러면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작성한 『수로지』에는 독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1883)와 조선의 범위

일본의 해군성 수로부가 처음으로 발행한 수로지는 1883년의 『환영수로지

『寰瀛水路誌』이다. 『환영수로지』의 환(寰)자는 ‘천하, 세계’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영(瀛)자는 ‘바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환영수로지』는 ‘세계 바다의 수로지’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조선, 러시아의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수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수로지 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권 제1편 총기(總記)에 조선의 범위가 명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조선의 범위는 ‘북위 33도 15분으로부터 동 42도 25분, 동경 124도20분으로부터 동 130도35분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었다³⁶⁾.

그런데 독도의 정확한 경위도는 ‘북위 37도14분, 동경 131도55분’이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와 일본학자들은 당시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조선영토 외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강조한다³⁷⁾. 나아가 그들은 당시의 메이지 정부가 독도를 조선영토로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조치는 독도에 대한 침략행위가 아니었고 무주지(無主地) 즉 국적이 없는 땅에 대한 선점(先占) 행위로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조선의 범위를 누가 정했는가가 문제이다. 이 문제를 깊이 분석하면 뜻밖의 결과에 도달한다. 먼저 조선의 범위를 경위도로 나타낸 것은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그리고 조선이 이렇게 일본이 매긴 조선의 범위를 승인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조선의 범위에 동의할 수 필요가 없다(필자의 지적임).

한편 일본학자들이 1899년에 대한제국 학부가 발행한 지리교재 『대한지지(大韓地誌)』에도 대한제국의 범위는 ‘북위 33도15분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24도 35분으로부터 동경 130도35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시 독도가 한국 영토에서 빠져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대한지지』의 기재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된다(필자에 의한 지적임). 예를 들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대한지지』의 후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일본의 지리서를 번역했다’³⁹⁾고 기재되어 있다. 이 교재는 결국 일본 교재를 번역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재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필자의 지적임).

그뿐만이 아니라 더욱 큰 문제가 숨어 있다. 각종 『수로지』와 『대한지지(大韓地誌)』에서는 한국(조선)의 동쪽 끝을 ‘동경 130도35분’으로 했는데 그렇게 정한다면 독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까지도 한국(조선) 영토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울릉도의 경위도는 ‘북위 37도29분, 동경 130도 54분’이므로 각종

36) 『寰瀛水路誌』 제2권 제1편 總記, 일본 국회도서관, 1883.

37) 竹島問題研究會,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2007, p.154.

38) 상계서, p.155.

39) 『대한지지』, 1899, 후기.

『수로지』와 『대한지지』는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잘못된 경위도로 한국(조선)의 동쪽 끝을 표현했다는 것이다(필자의 지적임).

결론적으로 각종 『수로지』에 기재된 한국(조선)의 범위는 일본이 당시 독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필자의 지적임). 일본 외무성의 와타나베 히로키 국장이 1876년에 드러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야심을 『수로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조선)의 영토에서 제외함으로써 발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⁴⁰⁾.

(2) 『수로지』 속 독도의 기술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에는 독도를 2권 제4편 <조선동안 및 제도(諸島)>에 포함시켜 ‘리앙쿠르 락스’의 일본식 발음인 ‘리안코르토 열암’으로 기록했다.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열암은 1849년 프랑스선 ‘리안코르토 호(=리앙쿠르 호)’가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해 선박 명을 붙여서 ‘리안코르토’열암으로 명명했다. 그후 1854년 러시아의 프리게이트형함 ‘파르라스’가 이 열암을 ‘매넬레이’ 및 ‘오리벳좌’열도로 칭했고 1855년 영국함 ‘호넷’호가 이 열암을 탐험하여 ‘호넷’열도로 명명했다. 이 함의 선장 ‘폴레스’가 말하기를 이 열암은 북위37도14분, 동경131도55분에 위치하는 불모의 두 암서(岩嶼)로 새똥이 항상 섬 표면에 쌓여 있으므로 섬의 색깔이 하얗다. 북서 측에서 남동 측으로 이르는 길이는 합계 약 4km이고 두 암서의 거리는 약 1km 정도이다. 연결되는 암초가 있어 두 암서를 연결하고 있는 것 같다. 서쪽 암서는 해수면상의 높이가 약 410척(약 124m)이다.(후략)⁴¹⁾

위의 수로지 기재내용을 보면 ‘리안코르토 열암(=리앙쿠르 락스, 독도)’이 발견된 것은 1849년에 프랑스 함 ‘리앙쿠르 호’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하면서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불려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누락시켰다(필자의 지적임). 이것은 독도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망각, 혹은 고의적 서술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독도를 장악하려는 저의를 갖고 일부러 독도의 일본 이름과 그 역사를 누락시켜 독도를 마치 새로 발견된 섬인 것처럼 꾸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필자의 지적임).

즉 1880년 이후, 일본의 해군성 수로부는 독도의 역사를 완전히 망각해 버렸거나 의도적으로 기재하기를 막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수로지는 울릉도에

40) 川上健三, 전계서, pp.38-39.

41) 『환영수로지』, 제2권, 1883, p.399.

대해 ‘일명 마쓰시마’라고 표기하여 ‘리안코르토 열암’ 다음에 소개해 놓았다.

수로부가 독도의 역사를 망각했다면 1905년의 독도 시마네현 강제편입은 잘못된 인식, 즉 독도를 무국적(무주지)로 간주함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될 것이고, 고의적으로 독도의 역사를 누락시킨 것이라면 역시 1905년의 편입은 제국주의적 탐욕에 의한 행위로 무효가 된다(필자의 지적임).

어쨌든 리앙쿠르 락스가 고래의 마쓰시마이코 조선의 부속이라는 문서가 존재하는 이상, 1905년의 편입은 성립 근거자체가 원천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영수로지』가 발행된 다음 1894년, 일본 수로부는 『조선수로지』를 발행했다. 『조선수로지』에 기록된 한국(조선)의 경위도는 『환영수로지』와 똑 같고 울릉도와 독도가 제외되는 오류를 그대로 범하고 있다.

그리고 제4편 ‘조선동안 및 제도’에 ‘리안코르트 열암’과 ‘울릉도(일명 마쓰시마)’를 포함시켰다. 기재내용은 『환영수로지』와 차이가 없다.

『조선수로지』는 1899년에 제2판이 발행되었으나 조선의 경위도, ‘리안코르토 열암’, ‘울릉도(일명 마쓰시마)’ 등에 대한 기재에는 제1판과 같다.

한편 일본 해군성 수로부는 1897년에 『일본수로지』를 발행했다.

이 『일본수로지』 4권 제3편에는 ‘분주 북서안(本州北西岸)’에 대한 기재가 있고 독도에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인 오키(隱岐)가 기재되었으나 독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독도는 일본 수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조선 동안에 포함된 것이다. 1905년 이전의 『조선수로지』나 『일본수로지』에 대한 분석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진 바 있다.

(3) 『수로지』가 독도 시마네현 강제편입(1905)에 미친 영향

지금까지 주로 지적된 바음 다음과 같다.

1904년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하던 오키섬의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독도에서의 강치잡이를 독점하는 목적으로 일본정부에 ‘랴코도(리앙쿠르 락스, 독도)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했다. 이때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랴코도(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전해 나카이에게 ‘랴코도(리앙쿠르 락스, 독도)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은 당시의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였다⁴²⁾.

그런데 기모쓰키는 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을까? 여기부터는 필자의 분석이다. 기모쓰키는 아마도 『수로지』에 기재된 한국의 범위와 독도의 경위도를 비교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 외에 있다는 기재를 근거로

42) 박병섭 타, 『독도=다케시마 논쟁』, 보고서, 2007, pp.158-159.

독도가 무주지라고 판단한 모양이다(필자의 지적임).

그리고 1870년, 187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최고기관이었던 태정관이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 혹은 ‘본방(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한 공문을 남겼다. 그러나 기모쓰키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일부러 무시한 가능성이 있다. 즉 독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생략한 채 일본에 의한 독도편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내무성은 독도를 ‘조선영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나카이의 ‘랴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했으나 외무성이 정당한 조사 없이 러일전쟁이라는 시국을 강조하면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했고 다른 성청을 설득해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⁴³⁾.

결국 1905년의 일본에 의한 독도 시마네현 편입은 과거 독도를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조선땅으로 인정해 온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해군성 수로부가 그 불법행위의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다(필자의 지적임).

결 론

1840년에 시볼트가 작성한 지도에 나타난 Takashima, Matsushima는 시볼트가 일본에서 얻은 지도를 참고로 그린 울릉도(디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였으나 서양인들이 울릉도를 잘못 측량한 아르고노트 섬과 울릉도를 정확히 측량한 다줄레 섬의 이름과 경위도를 각각 두 섬 옆에 병기했기 때문에 후에 일어난 섬의 명칭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명칭혼란이 일본에게 준 영향은 현재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크지 않았다. 서양에 있어서의 울릉도, 독도의 명칭혼란은 서양인들이 나름대로 독도를 발견한 1847년 이후에 일어났다. 그것이 일본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동해에 3개 섬이 그려진 지도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1869년 이후의 일로 보인다.

일본정부의 일부는 독도의 전통적인 명칭이었던 ‘마쓰시마’를 19세기 중반에 거의 망각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민간지도 중에는 19세기말까지 독도를 ‘마쓰시마’라는 전통 명칭으로 그린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볼 때,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독도의 일본명칭이 일본인들의 머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얀코르토 암’이라고 기재한 지도나 문

43) 상계서, pp.164-165.

서 중 반 이상은 공식지도, 공식문서였고 1883년 이후부터 편집된 『수로지』에 기재된 문서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런데 일본의 해군성 수로부는 각종 『수로지』에 독도는 1847년에 프랑스 선박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섬이라고 기재하여 일본 역사 속의 독도의 역사와 전통적인 독도의 명칭(=마쓰시마)을 무시한 채, 먼저 ‘조선동안’에 독도를 ‘리얀코르토 열암’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소로부가 발행한 『환영수로지』나 『조선수로지』속에서 ‘리얀코르토 열암(=독도)’는 그 경위도로 볼 때 조선 영토 외로 기재되었다. 일본학자들은 그것을 들어 일본이 독도를 조선영토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로지』가 기재한 조선에 범위에서는 울릉도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작성한 조선의 범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표시 잘못으로 독도가 조선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측의 큰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876년에 일본 외무성은, 서양인이 붙인 ‘호넷 락스’나 ‘리앙쿠르 락스’라는 명칭의 섬이 ‘고래의 마쓰시마(=독도)’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⁴⁴⁾. 그러나 1880년에 울릉도를 조사한 후 일본정부는 울릉도를 ‘마쓰시마’, 독도를 ‘리얀코르토 열암’이라는 명칭으로 고정시켜 버렸다. 결국 두 섬의 명칭혼란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외무성이 독도의 고래의 이름이 ‘마쓰시마’임을 알면서도 그 이름과 역사를 버렸다는 것이 독도를 무명, 무주지로 하여 시마네현에 강제편입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배경으로 1905년에 일본인들이 주장한 무주지 ‘리얀코르토 열암(=독도)’은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얻어 시마네현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다. ‘조선의 땅일지도 모르는’ 리얀코르토 열암(독도)에 대해 한국에 조회해야했던 당연한 의무를 생략한 채, 일본은 러일전쟁이라는 시국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영토 편입시킨 것이다.

44) 川上健三, 전계서, pp.38-39.

【参考文献】

- 川上健三、『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1966)
박병섭 타, 『독도=다케시마 논쟁』(2007)
호사카유지, 『우리역사 독도』(2009)
해군수로부, 『환영수로지』, 제2권(1883)
해군수로부, 『조선수로지』, 제2판(1899)
대한제국학부, 『대한지지』(1899)
竹島問題研究會、『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2007)
시볼트 기념관, 『シーボルトのみたニッポン』(2005)
竹島問題、<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osition1-k.html>.
古地図の世界、<http://www.library.pref.gifu.jp/map/kochizu/data/07.html>.
『태종실록』
『고종실록』
『정조실록』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공문록』

要 旨

1840年にシーボルトが作成した地図のTakashima、Matsushimaは、シーボルトが日本で得た地図を参照にした鬱陵島(=竹島)と獨島(松島)だったが、西洋人が鬱陵島を誤って測量したアルゴノート島と鬱陵島を正確に測量したダジュレー島の名前と経緯度を、それぞれ二つの島の名前の横に並記したため、島の名称が混亂を起した。

西洋における鬱陵島と獨島の名称混亂は、フランス船が獨島を發見した1847年以降に起きた。それが日本で影響を与え始めたのは、東海に3個の島が描かれた地図が日本で初めに發行された1869年以降であった。

日本政府の一部では獨島の伝統的な名称「松島」を19世紀半ばにはほとんど忘れていた。しかし多数の民間地図は19世紀末まで獨島を「松島」という伝統の名称で描いたものが多かったという事実を見る時、江戸時代の獨島の名称が日本人たちの頭からまったく消えたわけではなかった。

ところが日本の海軍省水路部は各『水路誌』に獨島は1847年にフランス船によって初めて發見された島と記して、日本史の中の獨島の歴史と伝統的な獨島の名称(=松島)を無視したまま、先ず「朝鮮東岸」に獨島を「リヤンコールト列岩」と記載した。しかし水路部が發行した『寰瀛水路誌』や『朝鮮水路誌』は、「リヤンコールト列岩」(=獨島)の経緯度を朝鮮の領土の外と記した。日本の學者たちはそれを指摘しながら、1905年以前に日本は獨島を朝鮮領土と思ったことがないと主張する。しかし『水路誌』の朝鮮の範囲から鬱陵島も除かれているので、日本の作成した朝鮮の範囲自体に問題がある。

ところで1876年に日本の外務省は、西洋人の名付けた「リヤンコールト列岩」という名称の島は「古來の松島(=獨島)」と結論を下した事がある。しかし1880年に鬱陵島を調査した後、日本政府は鬱陵島を「松島」、獨島を「リヤンコールト列岩」という名称に固定してしまった。結局、1880年に日本政府と外務省は、獨島の古來の名称が「松島」だったことを知りながらその名称を捨てたところに問題の素地があった。

1883年以降に發行された各『水路誌』には、獨島が「1847年にフランス船によって「初めて發見された」と記載され、松島(=獨島)の歴史は一切無視されてしまった。このような背景で、1905年には獨島は日本人たちによって無主地と宣言され、島根縣に編入されたのだった。

キーワード：シーボルト、西洋地図、東海探訪、水路誌、獨島の経緯度、無主地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